

오리온, 바이오 등 대규모 투자 지속… 제과사업 한계 넘는다

현금창출력 바탕 신사업 고도화
지속 성장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
실제 실적 기여까지는 시간 필요

오리온이 제과 사업에서 확보한 견조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바이오를 포함한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그룹의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 제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바이오를 제과 이후의 핵심 성장축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오리온의 본업인 제과 사업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리온의 국내법인 매출은 5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5.4% 감소한 89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 법인은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법인은 매출 7877억원, 영업이익 1447억원으로 각각 24.4%, 33.7%



오리온 신사옥 전경.

/오리온

증가해 국내법인의 실적 규모를 넘어섰다. 베트남 법인 역시 매출(+15.9%)과 영업이익(+15.2%) 모두 호조를 보였으며, 러시아 법인은 매출 32.1%, 영업이익 62.2%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2025년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조3324억원,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5582억원을 올리며 본업의 강력한 현금 창출 체력을 입증했다.

오리온은 국내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원가 부담에 대응해 바이오, 간편대용식, 음료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리가캄바이오사이언스(이하 리가캄바이오)를 중심으로 육성 중이다.

오리온은 2024년 5485억원을 투입해 리가캄바이오 지분 25.7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해외 종속회사인

팬오리온을 통해 전환우선주 825억원, 전환사채(CB) 425억원 등 총 125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핵심 과이프라인의 임상 2·3상 진행 및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확보를 위한 R&D 재원을 지원하고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리가캄바이오의 자체 ADC 플랫폼 ‘컨쥬올(ConjuAll)’을 바탕으로 안센바이오(최대 17억달러 규모), 일본 오노약품공업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며 누적 13건, 총 10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안센에 기술이전한 LCB84는 글로벌 임상 1·2상이 진행 중이며, LCB97 또한 일본에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오리온그룹은 치과질환 치료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2022년 하이센스바이오와 합작법인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고, 기능성치약을 개발해 해외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바이오 사업이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약 개발 특성

상 R&D 비용 지출이 지속되는 데다,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가캄바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416억원을 올렸으나 영업손실 106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429억원, 영업손실은 1185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바이오 투자는 그룹 오너 3세인 담서원 부사장의 경영 시험대이자 전략적 과제로도 꼽힌다. 2021년 수석부장으로 입사한 담 부사장은 상무와 전무를 거쳐 2025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전략경영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중장기 미래사업을 총괄함과 동시에 2024년부터 리가캄바이오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맞춰 미래 성장 사업으로 바이오를 선정했다”며 “식품과 바이오라는 핵심 축을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CJ제일제당, 글로벌 소비자에 ‘K-김’ 알린다

수협중앙회 ‘GIM’ 브랜딩 캠페인 참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서 비비고 김 샘플링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통해 한국 김 알리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FC(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 경기에서 비비고 김 샘플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협중앙회가 한국 김의 미국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GIM’ 브랜딩 캠페인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은 캠페인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총 7회 행사 가운데 2개 회차를 맡고 비비고 김 2000개를 현지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첫 행사는 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KCON LA’ 기간에 맞춰 열린 LAFC와 샌디에이고 FC 경기에서 비비고 김을 샘플링했다. 2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CJ제일제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장 풀치른 오라클파크에서 비비고 김 샘플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에서 열린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에서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이정후 선수의 ‘바블헤드 데이’와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비비고 김을 알렸다.

경기장에는 비비고 배너를 설치하고 인플루언서 초청과 SNS 콘텐츠 등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했다. CJ제일제당

은 스포츠 관람객을 대상으로 김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으로 소개하며 현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비비고 김을 소개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 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

리빙·가전·뷰티 등 선물상품 선봬

SSG닷컴은 추석을 앞두고 6일까지 ‘쇼핑 익스프레스’ 행사를 열고 리빙, 가전, 뷰티 중심의 선물용 상품을 선보인다.

르크루제 하트 머그·트레이 세트와 송월타올 세트 등 실속 선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호도 가전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슬름 소형 안마기와 쿠쿠 음식물처리기를 각각 최대 35% 할인한다.

또 입생로랑·딤티크 등 인기 브랜드 기획전을 순차적으로 열고, 설화수·조말론 런던·산타마리아노벨라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추석 기프트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노브랜드 버거, 앱 누적회원 80만명 돌파

신세계푸드 할인·프로모션 확대

신세계푸드는 8월 기준 노브랜드 버거 자체 앱 누적 회원 수가 80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앱 쿠폰 사용량도 50% 늘었다.

신세계푸드는 고물가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과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앱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앱을 통해 정기 프로모션인 ‘와페모 데이’와 매주 혜택이 바뀌는 ‘NBB 쿠폰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80만명 돌파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와페모 데이’에서는 앱을 통해 NBB 어메

이징 더블업, NBB 어메이징 더블 치즈, 메가바이트, 오리지널 새우, 스모크 바비큐 등 5종의 세트 메뉴를 구매하면 같은 메뉴의 단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메뉴별 최대 43%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은 ‘NBB 쿠폰팩’을 통해 버거 세트업과 사이드 메뉴·음료 증정 등의 혜택을 매주 제공한다. 신세계푸드는 앞으로도 자체 앱을 중심으로 할인과 프로모션을 확대해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할인과 증정 혜택을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 AX 분야 등 세 자릿수 신규 채용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돌입

롯데가 9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은 계열사별 채용 시기를 3·6·9·12월로 정해 지원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롯데건설, 롯데이노베이트 등 1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50여 개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는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I·AI Transformation)을 위한 관련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는 롯데이노베이트와 롯데건설은 자연어 및 시각·음성 처리,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롯데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롯데웰푸드, 롯데마트·슈퍼,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건설 등 20개 계열사가 참가해 회사 및 직무 소개와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전형을 거쳐 입사한 직원들도 참여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채용 과정과 입사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채용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에너지마티리얼즈와 롯데정밀화학은 울산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채용박람회를 열고 이공계 인재 채용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충청·호남·영남 지역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미트프로젝트, 한우·육포 등 선물세트 선봬

대상그룹 해성프로비전의 육류 전문 브랜드 미트프로젝트가 추석을 앞두고 한우, 미국산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LA 꽃갈비세트(1.8kg)’다. 미국산 소고기 중 6·7·8번 꽃갈비를 선별해 구성했으며, 청정원 LA갈비 양념 소스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감하루’에서는 ‘한마리 세트(1kg)’와 ‘구이 한판세트(1kg)’를 판매한다. 한마리 세트는 구이용·국거리·불고기용 부위로, 구이 한판세트는 등심·채끝·갈비살·부채살 등 구이용 부위로 구성했다.

육포 제품인 바삭 통육포 프리미엄 세트도 마련했다. 오리지널과 매콤한맛 각각 6팩씩 총 12팩에 매운치즈소스와 매운살사소스를 함께 담았다.



미트프로젝트 ‘추석 선물세트

/대상그룹

추석 선물세트는 9월 21일까지 미트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배송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의 10% 적립과 첫 구매 고객 대상 육포 증정 혜택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